**이름**

박진현

* **블로그나 브런치,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, 활동명과 아이디,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.**
* **제출 글 1 PDF - 문단 배치, 연갈이, 행갈이 확인 목적**

[57Ifr8QL\_5\_눈의말.pdf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- 텍스트 추출**

[57Ifr8QL\_7\_눈의 말.hwp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- 띄어쓰기 포함 200자**

내가 떠났던 너의 일상에게 건네는 어쩌면 다시는 하지 못할 인사. 우연이 스쳐지나가는 낯선 타인처럼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. 그때 다시 한 번 건네 보는 인사, 안녕.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'가장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무관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'두번째로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무관

* **제출 글 2 PDF - 문단 배치, 연갈이, 행갈이 확인 목적**

[57Ifr8QL\_16\_바다가 되어.pdf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- 텍스트 추출**

[57Ifr8QL\_18\_바다가 되어.hwp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- 띄어쓰기 포함 200자**

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여행은 괴롭고 힘들지만, 괜찮아. 힘들 때는 해와 달을 봐. 그리고 내 울음소리를 들어. 다 너를 위한 것이니까.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'가장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무관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'두번째로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무관

* **작가인터뷰 - Q1.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! (인적사항 제외)**

저는 시쓰는 물리학도입니다.

* **작가인터뷰 -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. Q2.**

당신에게 글이란?

* **작가인터뷰 - Q2. 위 질문에 대한 답 -띄어쓰기 포함 350~400자**

저에게 글이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. 글을 쓰는 과정은 글의 주제를 생각하고, 초안을 쓰고, 초안을 거듭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.

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이 평소에 의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그 사색의 시간은 글의 방향타가 되어 어디로 나아갈지

모르는 초안의 바닷속에서 작가가 바라던 오직 하나의 글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작가가 바라던 하나의 글을 찾았다고 해도 여행이 끝나는 것은

아닙니다. 하나의 글을 찾은 이후에는 사색의 시간이 인생이라는 바닷속에서 내가 바라는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는 방향타가

되어줍니다. 그 여행 속에서 저는 제가 처음에 보았던 것들이 사뭇 바뀌어 있음을 종종 인지합니다. 슬픔이었던 것들이 희망으로 보이고, 비극이었던 서사가

희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줍니다.

**작가인터뷰 -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. Q3**

왜 글을 쓰시나요?

* **작가인터뷰 - Q3. 위 질문에 대한 답 -띄어쓰기 포함 350~400자**

처음에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효과가 나온다~ 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

직접 시를 써보며 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. 고등학교 1~2학년 때는 그런 단편적인 이유로 글을 쓰곤 했는데,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아무에게도

말하지 못하는 저만의 고민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전 그런 고민을 글 속에 담아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비워내었습니다.

아무도 내 편일 것 같지 않던 외로운 시간 속에서 제가 쓴 시를 보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.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제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 글을

쓰는 것 같습니다. 글을 쓰다 보면 내면에서 저도 몰랐던 무언가가 튀어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잊고 싶지 않아 글 속에 담아두곤 합니다.

**작가인터뷰 - Q4. 맺음말 -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(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.)**

세상에는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. 누군가가 저에게 좋은 취미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글쓰기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글쓰기는 내면의 다른 ‘나’와,

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주 기묘한 경험을 선사해줍니다. 위에 소개해드린 두 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초대장입니다. 글쓰기의

세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